

한말·일제강점기 내한 간호선교사의 사역 연구

한미영,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생

I.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간호 역사에 관한 이해는 한국 간호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유용한 간호지식체의 개발은 물론 타학문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상황들을 개방적인 태도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간호학의 지난 역사를 되짚어 보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즉 지나온 간호역사를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현재의 간호 상황을 바라봄으로써 오늘 날 한국의 간호가 당면하고 있는 제 문제에 대한 통찰력과 미래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안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오가실 외, 2000).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간호의 시작은 한말·일제강점기에 서양간호선교사에 의해 도입되어 태동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한국의 간호역사에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기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 편이다.

그 시기의 서양간호선교사들이 입국 후 우리나라에서 한 사역은 1890년대 말 병원을 중심으로 환자간호를 하였고, 1920년대는 보건간호사업으로 확대되었다(이꽃메·김화중, 1999; Roberts, 1920). 또한 그들은 간호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한국에 자립적인 근대간호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복음전도, 위생교육을 시행하였고, 이룸갓기 등의 여성운동, 절제운동, 구제사업 등의 사회사업과 YWCA 활동 등에도 동참 하였다(송현강, 2011; 최영근, 2012).

한말·일제강점기 동안 활동한 서양의료인으로 은 간호선교사는 136명, 의사선교사가 133명으로 간호사의 비율이 50% 이상 이었다(황상익·기창덕, 1994). 그러나 이들 간호선교사의 사역은 몇몇 선교사를 제외하고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편이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 고찰 시 간호선교를 의료선교에 포함시켜 보거나 혹은 간호선교사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 교회사 속에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독교계 등에서 한말·일제강점기 내한 서양선교사들의 사역에 대한 평가 작업이 일부 되었거나 진행 중이지만 간호계를 중점적으로 정리한 사료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또한 간호계에서 이루어진 소수의 역사연구는 간호교육의 발전에 치중되어 있으며 근대간호의 도입 시기에 주축을 이루어 활동한 간호선교사 명단 정도만 파악되어 있는

실정이다(옥성득, 2012).

그 동안 간호학에서는 간호 역사를 바라보는 자세에 있어 역사적 사실들을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연결시켜 이해하기 보다는 전체사에서 간호만을 따로 떼어내려 한 경향이 있었다(김남선, 1997). 그러나 앞 세대의 역사적 현실을 구성한 수많은 구성요소들은 다음 시대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우리가 통합된 관점에서 근대 간호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총괄적인 간호 선교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간호 선교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말·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서양 간호사의 활약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시절 활동한 간호사들의 대부분은 크리스천 간호 선교사이었기 때문이다(황상익·기창덕, 1994). 그리고 그 시기에 활동한 간호 선교사들의 배경을 탐색함으로써 그들이 한국에서 행한 사역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Ahn, 2009=김성웅 역, 2012, 15-20).

내한한 간호 선교사들은 대부분 교단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는데,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사역한 개신교 선교를 한 교단은 미북장로회, 미북감리회, 미남장로회, 미남감리회, 캐나다장로회, 호주장로회가 있었다. 그 시절 교단 또는 선교회의 사역은 일찍부터 교단 분할 정책에 따라 각 선교회가 서로 다른 담당 지역을 맡아 사역한 것이 특징이었다(Rhodes, 1929=최재건 역, 2010: 104). 그러므로 간호 선교사들의 활동 자료를 확인할 때는 선교회별, 지역별로 접근하는 것이 용이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내한 간호 선교사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간호학 분야에서는 일제시대 선교회의 보건사업에 관한 연구(이꽃메·김화중, 1999)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의 기틀을 다진 외국 선교사들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이정열 등, 2011). 그리고 신학 분야에서는 간호 선교사에 대한 인물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황미숙(2011)은 Maren Boarding을, 옥성득(2012)은 Margaret Edmunds를, 최영근(2012)은 Elisabeth Shepping에 관하여 연구를 한 바 있다. 또한 의사학 부문에서 조선말과 일제 강점기 동안 내한한 서양 선교의료인의 활동을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었다(황상익, 기창덕, 1994). 그러므로 그 시기에 내한하여 활약한 간호 선교사들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말·일제강점기 동안 내한한 간호 선교사의 흩어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은 간호학에서 역사적 관점을 정립할 수 있는 역사 연구의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시작점은 1891년에 내한한 최초의 서양 간호 선교사인 Heathcote를 제외한 Ella A. Lewis가 내한한 1892년부터 하였다. 그 이유는 영국 성공회 소속인 Gertrude Heathcote는 사료가 불충분하여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구의 마침점은 미일관계 악화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출국한 1940년으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해방 이후 재입국 선교사가 있었으나 당시는 이미 한국 간호사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해방 전과 후의 선교사의 활동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조동걸 외, 1994: 321-322), 우리나라에서 1892년부터

1940년까지 활동한 간호선교사들의 주 활동지와 활동기간 및 주요 업적 및 출신지, 교육배경, 소속교단을 탐색하여 역사적 통찰과 해석을 위한 관련 사료를 제공하고자 시도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구한말·일제강점기 동안 내한한 간호선교사의 선교회별, 지역별 주요업적을 탐구하기 위한 역사적 접근연구(historical method)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1892년부터 1940년까지 내한한 간호선교사 중 한국 도착 시점과 은퇴 시점이 분명한 사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조선에서 간호활동을 하였으나 간호사(Registered Nurse, R.N.)가 아닌 경우와 간호학교를 졸업하였으나 조선에서 간호사로 사역하지 않은 남감리회의 Campbell, Josephin Eaton Peel(강모인, 강부인/姜慕仁, 姜婦人)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자료수집 도구 및 방법

본 연구는 조선재유구미인조사록, 내한선교사총람, 한국간호역사자료집 I, 한국기독교의료사, 미국북장로교 한국선교회사, 미국남장로회 한국의료선교역사, KMF 및 기타 관련문헌을 참고하여 내한 간호선교사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였다. 자료검토 결과 1882년부터 1940년까지 활동한 내한간호선교사는 북장로회 25명, 북감리회 13명, 남장로회 15명, 남감리회 11명, 캐나다장로회 6명, 호주장로회 4명 등 총 74명이었다. 이 중 사료들 간 한국에서 사역한 시기와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북장로회의 Ella M. Reiner와 남감리회의 Carrie Turner(端雅)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한국에서의 사역내용과 사역지가 명확하지 않은 북장로회의 Vannie Knorr(Mrs. S. P. Tipton), Nina Bierman Bercovitz, Norma Blunt(Mrs. JD. Bigger)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내한하여 언어습득 등의 이유로 사역준비기간을 가진 경우는 첫 사역지에 포함시켜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장로회와 감리회 소속 간호선교사들만을 포함시켰으므로 연구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Ⅲ. 연구결과

1. 미 북장로회를 기반으로 한 간호선교사와 사역

미 북장로회는 구한 말 기독교가 수용되는 데 큰 역할을 한 교단으로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양성학교를 설립하여 한국의 자립적 간호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또한 6개의 교단 중 가장 많은 수의 간호선교사를 파송하였는데, 주된 사역지는 서울·경기, 대구·경북, 평안도 지역이었다. 각 지역에서 이루어진 간호선교사들의 사역은 다음과 같다.

(1) 서울·경기지역 사역

북장로회는 서울을 기점으로 의료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서울·경기지역 사역은 최초의 근대적 의료기관이었던 서울 제중원(후일 서울 세브란스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Anna P. Jacobson (아각선/雅各善)은 북장로회 첫 간호선교사로 1895년 내한하여 서울 제중원에서 일했다. 청일전쟁과 콜레라로 많은 환자를 간호했으며, 병동에 살균법과 소독법을 도입하고, 병동체계를 만들었으나 이질로 인한 간농양으로 1897년 사망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38; 신호철, 2004: 132p; 옥성득, 2011: 481; 이만열, 2003: 80; Rhodes, 1929=최재건 역, 2010: 603). Esther Lucas Shields (수일사/秀日斯)는 Jacobson의 후임으로 1897년 내한하였다. 선천지역에서 여성계몽을 위한 순회 전도사역을 하기도 했으나 주요활동지는 서울 세브란스병원이었다. Shields는 간호사역이 지속되려면 본토인 즉 조선인 사역자의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Shields, 1907), 보구여관의 Margaret Jane Edmunds와 협력하여 1906년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양성학교를 설립하였다. 세브란스병원 간호사양성학교는 1910년 첫 졸업생 김배세를 배출한 이후 1936년까지 총 18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는데, Shields는 이 학교의 교장으로 1923년까지 근무하며 간호교육에 힘썼고 이후 세브란스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으며 1938년 은퇴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465). Mary E. Brown은 1903년 내한하여 서울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했으며 특히 보구여관 간호사 양성학교 설립을 돕고, 강의도 맡았으나, 1905년 질환으로 사직하였다(옥성득, 2011: 587). Helen Forsyth(Mrs. Wm. Gray)는 1911년 내한하여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며 간호교육과 남대문교회 여자전도를 담당하였으며, 1915년 결혼 후 사임했다(김승태·박혜진, 1994: 254).

그 외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역한 간호사들은 다음과 같다. Theresa Lang Ludlow는 1911년 의료선교사인 남편과 함께 내한하여 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하였고, 1938년 사망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351; Rhodes, 1929=최재건 역, 2010: 595).

Kathlyn M. Esteb(예사탑/芮思塔)은 1915년 내한하여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장으로 1922년까지 근무한 후 청주로 전임되었다(김승태·박혜진, 1994: 246). Elizabeth Sanders(Mrs. E. L. Campbell)는 1915년 선천에서 전임되어 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하였으며 1933년 사직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196, 453; 이만열, 2003: 392; Rhodes, 1929=최재건 역, 2010: 595). Edna M. Lawrence(노연사/盧連史)는 1920년 내한하여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하며 간호사를 교육하였고 1941년 일제에 의해 강제추방 당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340; 이만열, 2003: 651, 860; 한국학연구소, 1981: 520, 624, 744).

한편 타 선교회 소속으로 세브란스병원에서 사역한 간호선교사는 다음과 같다. 남장로회의 Elizabeth Johanna Shepping (서서평/徐舒平)은 1918년 군산에서 전임되어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양성학교에서 사역하였으며 1920년 광주로 전임되었다(Crane, 1998=정병준 역, 2011: 81; 김수진, 1992: 557). 캐나다장로회의 Marbel Barbara Young은 1922년 원산에서 전임되어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장으로 근무했고 1935년 독감으로 사망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535; 신호철, 2004: 136; 한국학연구소, 1981: 270). 남감리회의 Maude, I. Nelson(나일선/羅一善)은 1928년 내한하여 1934년까지 세브란스병원 간호원양성소에서 근무했다. Nelson의 1935년, 1936년의 활동에 관한 기록은 찾지 못했으며, 1937년 춘천, 1938년 개성 남성병원에서 근무하였으며 1940년 귀국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395; 이만열, 2003: 708; 한국학연구소, 1881: 684, 759; Nelson, 1935). 남감리회의 Blanche E. Hauser(후서/厚瑞)는 1937년 원산에서 전임되어 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했고 1938년 귀국했다(김승태·박혜진, 1994: 308; 이만열, 2003: 446, 710; 한국학연구소, 1881: 632, 743).

(2) 평안도지역 사역

북장로회는 평안도의 평양 레드병원, 선천 미동병원, 강계 계례지병원을 설립하였다. 이 중 1906년 개원된 평양 레드병원(평양 제중원)은 1923년 북감리회의 기흥병원과 연합하여 평양기독교병원으로 발전하였다(이만열, 2003: 196).

평양지역에서 사역한 간호선교사는 다음과 같다. Lucil Campbell은 1909년 내한하여 평양 레드병원에서 근무하였고, 1913년 사직하였다(이만열, 2003: 387; Rhodes, 1929=최재건, 2010: 595). Ella M. Reiner는 1920년 대구에서 전임되어 평양 제중병원에서 근무하였으며, 1923년 사직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431; 이만열, 2003: 387, 396; 한국학연구소, 1981: 558; Rhodes, 1929=최재건 역, 2010: 595). Effie Swier는 1921년 내한하여 평양 레드병원에서 3년 간 근무한 후 사임했다(김승태·박혜진, 1994: 485; 이만열, 2003: 387). 후임으로 Anna Reist(Mrs Wm. Baird Jr.)가 1926년 내한하여 근무하였고 1929년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재령에서 선교활동을 하였으며 1940년 귀국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432; 이만열, 2003: 695; 한국학연구소, 1981:

664, 782). Edith Myers(매의덕/梅義德)는 1932년 대한하여 평양 연합기독병원에서 근무하였으며, 1941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출국 당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393; 이만열, 2003: 695; Rhodes, 1929=최재건 역, 2010: 598).

선천지역 간호선교사역은 미동병원(美東病院, In His Name Hospital)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선천지역에서 사역한 간호선교사는 다음과 같다. Hilda L. Helstrom(허희다/許喜多)은 선천지역 첫 간호선교사로 1909년 대한하여 선천미동병원에서 근무하며 순회전도사역을 하였고, 1912년부터 선천의 여자성경학교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1915년 강제로 전임되었다(김승태·박혜진, 1994: 291; 옥성득, 2011: 614; 한국역사연구소, 1981: 158; Helstrom, 1911; Rhodes, 1929=최재건 역, 2010: 213). Elizabeth Sanders(Mrs. E. L. Campbell)은 1913년 대한하여 선천 미동병원에서 사역하였으며, 2년 후 Campell과 결혼하였고 세브란스병원으로 전임되었다(김승태·박혜진, 1994: 196, 453; 이만열, 2003: 392; Rhodes, 1929=최재건 역, 2010: 595). Vera F. Ingerson(인거선/印居善)은 1916년 대한하여 선천 미동병원에서 근무하며, 1920년 간호사양성 학교를 시작하였다. 1929년 선천보성여학교 교사로 전임되었고, 1942년 선교사직에서 은퇴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316; 이만열, 2003: 392, 861; Rhodes, 1929=최재건 역, 2010: 213, 615).

강계지역의 간호선교사역은 계례지병원(桂禮智病院, 케네디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Jennie M. Rehrer(이우로/李雨路)는 강계지역 첫 간호선교사로 1917년 대한하여 계례지병원에서 근무했으며, 1928년 사임했다(김승태·박혜진, 1994: 430; 이만열, 2003: 397, 680). Hilda L. Helstrom(허희다/許喜多)은 1915년 선천지역에서 강제로 전임되어 강계 여자성경학원 설립을 돕고 후에 원장으로 근무하며, 전도부인과 함께 여자선교사로는 처음으로 만주 내륙지방까지 가서 전도 및 사경회를 인도하였다. 그녀는 1920년부터 강계 계례지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으며, 과로로 질병을 얻어 1927년 사임 후 1932년 캘리포니아에서 사망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291; 옥성득, 2011: 614; 한국역사연구소, 1981: 158; Helstrom, 1911; Rhodes, 1929=최재건 역, 2010: 213).

(3) 대구·경북지역의 사역

대구·경북지역의 간호선교사역은 당시 도청 소재지였던 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구제증원은 189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06년 개원한 대구 동산병원의 전신으로, Cameron 등 다수의 간호사가 대구 제증원의 발전에 동참하였다(이만열, 2003: 198; 이상규, 2000: 39).

Christine. H. Cameron은 대구 지방에서 일한 최초의 간호선교사로, 1905년 대한하여 대구제증원에서 근무했다. Cameron은 1907년 Johnson부인과 함께 도르가회(Dorcias Society)를 만들어 여성을 위한 사역을 했으나, 건강을 잃어 1909년 사임했

다(김승태·박혜진, 1994: 195; 옥성득, 2011: 489, 589; 이상규, 2009; Rhodes, 1929=최재건 역, 2010: 185). Mary McKenzie는 Cameron의 후임으로 1909년 내한하여 대구 제중원에서 근무했으나, 건강을 잃어 이듬해 사임했다(옥성득, 2011: 807; Rhodes, 1929=최재건 역, 2010: 193). Esthel McGee(Mrs. Chas. Rewarts, 백기/柏基)는 대구 제중원 세 번째 간호선교사로서 1911년 내한하여 1914년 결혼 후 사임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368; Rhodes, 1929=최재건 역, 2010: 193, 613). Elizabeth B. Bekins(Mrs. D. D. Depree, 배견인/裴堅仁)는 1915년 내한하여 대구 제중원에서 근무했으며 1919년 사임했다(김승태·박혜진, 1994: 161; Rhodes, 1929=최재건 역, 2010: 193). Ella M. Reiner는 1919년 청주에서 전임되어 대구 동산병원에서 근무하였으며, 1920년 평양으로 전임되었다(김승태·박혜진, 1994: 431; 이만열, 2003: 396; Rhodes, 1929=최재건 역, 2010: 595). Clara M. Hedburg는 1923년 내한하여 대구 동산병원에서 활동하며 영아보건사업도 함께 수행했으며, 1940년 일제에 의해 강제 송환되었고, 1944년 선교사직에서 은퇴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291; 이만열, 2003: 674; Rhodes, 1929=최재건 역, 2010: 193).

안동지역에서 사역한 간호선교사는 Ella J. Sharrocks (사은라/謝恩羅) 이다. Sharrocks는 선천 미동병원에서 근무한 의료선교사 A. M. Sharrocks의 장녀로 평양에서 출생하였으며, 1926년 안동 성소병원에 부임하여 유아진료소를 운영하였다. 1928-1952년까지 대구와 서울에서 활동하며, 세브란스의전 부설 간호학과 교수, 병원 간호과장을 역임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462; 이만열, 2003:683; Rhodes, 1929=최재건 역, 2010: 608, 619).

(4) 기타지역의 사역

청주지역의 간호선교사역은 소민의원(던컨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Ella M. Reiner는 1916년 내한하여 청주 소민의원에서 근무하였으며, 1919년 대구로 전임되었다(김승태·박혜진, 1994: 431; 이만열, 2003: 396; Rhodes, 1929=최재건 역, 2010: 595). Kathlyn M. Esteb(예사탑/芮思塔)은 1922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전임되어 한국인 의사와 함께 청주 소민의원(던컨병원)을 운영하며 청주의 여러 곳에서 진료소를 설치하고 운영하였다. 또한 의사, 간호사, 복음전도자로 구성된 장터진료소(Market-place dispensary)를 만들어 시골장이 열리는 날 환자 진료 및 위생교육과 복음전도 사역을 하였으며, 1940년 사임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256; 이만열, 2003: 367, 369; Esteb, 1927; Rhodes, 1929=최재건 역, 2010: 604, 617).

2. 미 북감리회를 기반으로 한 간호선교사와 사역

미 북감리회는 서울과 평양을 중심으로 당시 소외계층이었던 여성들을 위한 의료

사역을 수행하였다(서정민, 2003: 40; 이만열, 2003: 52). 또한 1920년대 이후 기독교 사회사업에 적극 참여하였는데(Stocks, 1947=장지철·김홍수 역, 2010: 308), 이러한 미 북감리회의 사회참여적 성격은 간호선교에도 영향을 끼쳐 미 북감리회 간호선교사들은 1920년대 계획적으로 현재의 보건간호에 해당하는 지역간호(district nursing)를 수행하였다. 북감리회의 주 사역지는 서울·경기와 평양이었으며, 그 외에 충청도에서 사역하였다. 각 지역에서의 간호선교사역은 다음과 같다.

(1) 서울·경기지역 사역

서울·경기지역의 북감리회 간호선교사들은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병원인 보구여관(동대문부인병원)을 중심으로 사역하였다.

북감리회 첫 간호선교사인 Ella A. Lewis(유의선/劉義善)은 1892년 내한하여 보구여관에서 사역하였으며 1899년 이후 전도사역에 전념하였고, 1905년부터는 북감리회를 떠나 독립선교사로 활동 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344; 옥성득, 2011: 473; Stocks, 1947=장지철·김홍수 역, 2010: 92). Lewis의 후임으로 Margaret Jane Edmunds가 1903년 내한하였다. Edmunds는 1903년에 한국 최초의 간호교육기관인 보구여관 간호원양성학교를 설립하였고, 간호교육과정 확립 및 간호원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그리고 1906년 세브란스병원 간호원양성소의 설립을 돕고, 1908년 최초의 한글교과서인 ‘간호교과서’를 만드는 등의 활발한 사역을 펼쳤다. 이후 Edmunds는 1908년 결혼과 함께 미 남장로회로 소속교단을 옮겼고, 적극적 간호활동은 하지 않았으며, 1928년 은퇴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240; 옥성득, 2011: 570; Crane, 1998=정병준 역, 2011: 97; Stocks, 1947=장지철·김홍수 역, 2010: 152). 보구여관 간호원양성학교는 1933년 폐교될 때까지 49명의 졸업간호사를 배출하였다(이방원, 2011).

Alta Irene Morrison은 Edmunds의 후임으로 1908년 내한하여 보구여관 간호원양성학교의 원장으로 근무했다. 그녀는 1908년 조직된 대학졸업간호원회의 설립을 도왔고, 같은 해 보구여관 간호원양성소의 첫 한국인 졸업 간호사 이그레이스, 김마르다를 배출시켰으며, 1910년 사직하였다(옥성득, 2011: 593; Morrison, 1909). Naomi A. Anderson(안도선2/安道善2)은 1910년 내한하여 보구여관에서 간호사 양성과 동대문부인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동대문 구역 전도사업을 담당했으며, 1921년 평양기흥병원으로 전임되었다(김승태·박혜진, 1994: 142). Marie Mayme Rogers는 1921년 내한하여 동대문부인병원에서 근무하며 보구여관 간호원양성학교에서 간호교육을 하였고 1926년 사직하였다(김승태, 박혜진, 1994: 440; 이방원, 2011; 한국학연구소, 1981: 268).

한편 미 북감리회 간호선교사들은 처음부터 지역간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다(Roberts, 1920). 그 후 1924년 선교부의 주도 아래 계획적으로 서울, 인천, 충청도 지역에서 일제히 지역간호 사업을 수

행하였으며 이 사역은 주로 모성건강, 유아복지, 위생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이만열, 2003; 이꽃메·김화중, 1999). 서울·경기 지역에서 지역간호 사역을 한 간호선교사는 다음과 같다.

Elizabeth S. Roberts(우나부시/禹羅富時)는 1917년 내한하여 한국에서 처음 구역간호를 시작하였다. Roberts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영아보건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던 중 1차 세계대전 당시 적십자사의 요청을 받아 1918년 시베리아로 출국하였다. 이후 1919년 재입국 후에는 서울 동대문부인병원에서 근무하였고 1931년 사직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440; 이만열, 2003: 417, 698; Roberts, 1920). Elma T. Rosenberger(노선복/盧仙福)는 1921년 내한하여 동대문 부인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서울 근교 순회진료활동에 참여하였으며, 1924년부터 태화복지관에 파견되어 지역간호사업을 실시하였다. Rosenberger는 태화복지관에서 보건교육과 두유 공급 등 유아복지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으며, 1940년 귀국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444; 이만열, 2003: 740; Rosenberger, 1930; Rosenberger, 1931).

Alfrida Bertha Kostrup(고수도/高壽道)은 인천지역에서 진료소 사역(Dispensary work)을 하였다. Kostrup은 1922년 내한하여 1924년부터 제물포 부인진료소(The Chemulpo Women's Dispensary)에서 근무하며 아동진료, 공중위생계몽과 복음전도를 하였고, 1940년 일제에 의해 강제추방 당했다(김승태·박혜진, 1994: 335; 이만열, 2003: 418, 746; Kostrup, 1934).

(2) 평안도지역의 사역

평안도지역의 간호선교사역은 평양의 기흥병원(紀忽病院, The Hall Memorial Hospital)과 광혜여원(廣惠女院)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기흥병원은 1920년 장로회의 평양 레드병원과 합병하였고 1923년 광혜여원과도 통합하여 평양연합기독교병원으로 발전하였다(이만열, 2003: 197).

평양기독교병원에서 사역한 간호선교사는 다음과 같다. Sarah B. Hallman(허공양, 허공/許攻)은 1907년 내한하여 광혜여원과 기흥병원에서 근무하였고, 1912년 Beck와 결혼 후 적극적 간호활동은 하지 않았으며 1919년 사임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159, 280; 옥성득, 2011: 807; 이만열, 2003: 197, 213; 한국학연구소, 1881: 27, 53, 147). Naomi A. Anderson(안도선2/安道善2)은 1921년 서울에서 전임되어 평양연합기독교병원에서 근무하였으며 1928년 귀국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142). Ethel H. Butts(배맹수/裴孟壽, 배익수/裴益壽)는 1921년 내한하여 광혜여원에서 근무하였고, 평양연합기독교병원 형성에 기여하였으며, 1940년 일제에 의해 강제 추방되었다. Butts는 사역하는 동안 간호사 양성과 모자건강사업을 함께 수행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193p; 이만열, 2003: 749).

(3) 황해도지역 사역

황해도지역의 간호선교사역은 해주 노튼기념병원(후일 해주구세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해주 구세병원에서 사역한 간호선교사는 다음과 같다. Susannah Edge는 1913년 해주 구세병원에 부임하여 간호사양성사업에 비중을 두고 근무하였으며 1914년 사임하였다(이만열, 2003: 435, 436). Delia M. Battles는 1916년 내한하여 Edge 간호사의 뒤를 이어 간호사양성사업을 하였고, 1918년 사임하였다(이만열, 2003: 35, 438).

(4) 충청도 지역의 사역

충청도 지역의 사역은 공주의 보건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Maren Patersen Boarding(보아진/保雅鎮)은 1916년 필리핀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하였고, 1922년 한국으로 전임되어 1923년 공주로 파송되었으며, 1924년 1월부터 공주에서 공중보건과 영아복지사업에 헌신하였다(Boarding, 1928). Boarding은 1926년 한국 최초 우유보급사업과 함께, 주간 탁아소, 조산원, 간호학교 등을 운영했다(Boarding, 1928; 황미숙, 2011). 이후 1932년 충남의 도청소재지가 대전으로 옮겨감에 따라 1938년 대전 중앙영아관으로 사역지를 옮겨 충남 전 지역의 지역간호를 담당하였으며 1941년 일제에 의해 강제 출국당했다(김승태·박혜진, 1994, 174; 이만열, 2003: 701, 744, 746 ;한국학연구소, 1881: 644).

3. 미 남장로회를 기반으로 한 간호선교사와 사역

처음부터 복음진도와 아울러 의료선교를 염두에 두고 한국선교를 추진한 미 남장로회는 전라도의 선교지부 5곳에 모두 병원을 설립하였다. 이 5개의 병원은 지역 근대화와 보건의료 상황개선과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Crane, 1998=정병준 역, 2011: 65; 송현강, 2011). 남장로회는 전라도 군산, 전주, 목포, 광주, 순천을 중심으로 사역하였는데 각 지역의 간호선교사역은 다음과 같다.

군산에서의 간호선교사역은 1896년 설립된 군산 애킨슨병원(군산예수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Ethel Esther Kestler (계슬라)는 남장로회 한국선교부 첫 간호선교사로서 1905년 내한하여 군산 애킨슨병원에서 근무하였으며 1912년 전주예수병원으로 전임되었다(옥성득, 2011: 590; 이수진, 1992: 549; Crane, 1998=정병준 역, 2011: 222). Elisabeth Johanna Shepping (서서평/徐舒平)은 1914년 광주에 전임되어 군산 애킨슨병원에서 근무했으며, 1918년 서울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 양성학교로 전임되

었다(Crane, 1998=정병준 역, 2011: 222). Lillie Ora Rathrop (라두리/라두릅)은 1919년 목포에서 전임되어 군산 애킨슨 병원에서 근무했으며 1927년 건강문제로 사직하였다(Crane, 1998=정병준 역, 2011: 222). Rathrop은 병원에 버려진 많은 고아들을 기독교 가정에서 입양시켰고 간호사들 교육, 병원관리 등의 병원사역을 감당하였다(Crane, 1998=정병준 역, 2011: 81). Annie Isabell Grey (엄엘라)는 1921년 내한하여 군산 애킨슨병원에서 근무하였으며 1925년 사임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271; Crane, 1998=정병준 역, 2011: 222). Anna Lou Greer (기안라/奇安羅)는 1929년 순천에서 군산 애킨슨 병원으로 전임되었다(Crane, 1998=정병준 역, 2011: 221). Greer는 행정능력이 뛰어나 대부분의 병원운동을 담당하였으며 1935년 귀국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271; Crane, 1998=정병준 역, 2011: 82). Elizabeth Brown Woods (임혜인)는 1937년 내한하여 군산 애킨슨 병원에서 간호사를 양성하였으며 1940년 귀국하였다(Crane, 1998=정병준 역, 2011: 223). Edna Mae Newton Wilson은 1939년 내한하여 군산 애킨슨 병원에서 근무하였으며 1940년 귀국하였다(Crane, 1998=정병준 역, 2011: 222).

전주에서의 간호선교사역은 1898년 시작된 전주 매킨병원(전주예수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Emily Cordell은 전주 지역 최초의 간호선교사로서 1907년 내한하여 병원사역을 감당했고 1910년 목포로 전임되었다(이수진, 1992: 550; Crane, 1998=정병준 역, 2011: 222). Laura Mae Pitts는 1910년 내한하여 한국어를 배우며 전주 예수병원의 간호사 업무를 도왔고 1911년 말에서 추락 후 동맥과열로 사망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418; 옥성득, 2011: 616; Crane, 1998=정병준 역, 2011: 222, 89). Ethel Esther Kestler (계슬라/桂瑟羅)는 1912년 군산에서 전임되어 1940년 전주예수병원이 문을 닫을 때까지 사역했다(옥성득, 2011: 590; 이수진, 1992: 549; Crane, 1998=정병준 역, 2011: 89).

목포지역의 간호선교사역은 목포 프렌취병원(양동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Emily Cordell McCallie는 1910년 목포로 전임된 후 맥켈리 목사와 결혼하였다. McCallie는 남편과 함께 도서지방을 방문하여 섬 주민들을 치료하고 여성교육을 펼쳤지만 건강문제로 1926년 귀국하였다(김수진, 1992: 550; Crane, 1998=정병준 역, 2011:97, 222; Nisbet, 1931). Lillie Ora Rathrop (라두리/라두릅)은 1911년 내한하여 목포 프렌취병원에서 사역하였으며 1919년 군산으로 전임되었다(Crane, 1998=정병준 역, 2011: 222). Esther Boswell Matthews(마에스터)은 1920년 광주에서 전임되어 목포 프렌취병원에서 근무하였으며 1928년 사직하였다(Crane, 1998=정병준 역, 2011: 222). Georgiana Florine Hewson(허우선/許友善)은 1926년 광주에서 전임되어 프렌취병원에서 근무했으며 1930년 순천으로 전임되었다(Crane, 1998=정병준 역, 2011: 222). Mary Rachel Bain(배마리아)는 1921년 내한하여 프렌취병원에서의 사역과 함께 YWCA활동을 하였으며 1926년 광주로 전임되었다(김수진, 1992: 561; Crane,

1998=정병준 역, 2011: 221). Viginia Kerr Cumming은 1927년 내한하여 목포 프렌취 병원에서 근무하였으며 1934년 광주로 전임되었다(Crane, 1998=정병준 역, 2011: 96-97).

광주지역의 간호선교사역은 광주 그레함병원(광주기독교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Anna Lou Greer (기안라/奇安羅)는 1912년 내한하여 광주에서 1년 간 사역한 후 순천으로 전임되었다(김승태·박혜진, 1994: 271; Crane, 1998=정병준 역, 2011: 221). Elisabeth Johanna Shepping(서서평/徐舒平)은 1912년 내한하여 광주 그레함병원에서 2년 동안 근무하였고, 이후 군산과 서울에서 사역하였으며 1920년 광주로 돌아왔다. 이후 Shepping은 사역의 범위를 확장시켜 복음전도, 교육사역, 여성사역, 사회사업, 구제사역에 집중하였다. 대표적인 Shepping의 사역내용은 이일학교 설립, 여전도회의 모체가 된 여성조력회 조직, 절제운동과 여성 이름 부르기 운동, 1923년 조선간호부회 설립, 구제사역 등이다. 한국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헌신적으로 사역하던 Shepping은 오랜 질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1934년 사망하였다(Knox & Talmage, 1934). 그녀의 장례는 광주 최초 시민장으로 치러졌는데 한국정부는 1969년에 “1920년대 한국인을 향한 탁월한 공헌을 인정”하여 사후훈장을 수여하였다 (김수진, 1992: 557; 김승태·박혜진, 1994: 464; 송현강, 2011; Crane, 1998=정병준 역, 2011: 81). Esther Boswell Matthews (마에스터)는 1916년 내한하여 광주 그레함병원에서 근무하였으며 1920년 목포로 전임되었다(김수진, 1992: 558). Georgiana Florine Hewson(허우선/許友善)은 1920년 내한하여 광주 그레함병원에서 사역을 하였으며 1925년 목포로 전임되었다(Crane, 1998=정병준 역, 2011: 222). Malry Rachel Bain(배마리아)는 1926년 목포에서 전임되어 광주 그레함병원에서 근무하였으며 1927년 사직하였다(Crane, 1998=정병준 역, 2011: 221). Margaret Frances Pritchard (변마지/邊摩智)는 1929년 내한하여 광주 그레함 병원에 근무하였다. Pritchard는 1934년 광주 최초로 광주기독교병원 간호학교를 설립하여, 10명의 정식간호사를 배출하였으며, 남장로회가 전라도 지역에서 일제히 철수한 1940년 귀국하였다(김수진, 1992: 565; 김승태·박혜진, 1994: 423; Crane, 1998=정병준 역, 2011: 105-106). Viginia Kerr Cumming은 1936년 목포에서 전임되었고, 그레함병원에서 1938년까지 사역하였다(Crane, 1998=정병준 역, 2011: 221).

순천지역의 간호선교사역은 순천 알렉산더병원(안력산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순천지역에서 사역한 간호선교사는 다음과 같다. Anna Lou Greer (기안라/奇安羅)는 1913년 광주에서 전임되어 순천 안력산병원의 설립에 참여하였으며 그곳에서 병원사역을 하였고 1929년 군산으로 전임되었다(김승태·박혜진, 1994, 271; Crane, 1998=정병준 역, 2011: 82). Thelma Barbara Thumm (원마태)는 1930년 내한하여 안력산병원에서의 사역과 농촌교회 순회간호, 전도사역을 수행하였으며 홍역에 감염되어 1931년 사망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494; Crane, 1998=정병준 역, 2011: 222).

Georgiana Florine Hewson (허우선/許友善)은 1931년 목포에서 전임되어 순천 안력산병원에서 근무하였고 1940년 일제에 의해 강제 추방당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295-296; Crane, 1998=정병준 역, 2011: 222).

4. 미 남감리회를 기반으로 한 간호선교사와 사역

조선에 복음전도의 자유가 주어진 상황에서 선교를 시작한 미 남감리회는 의료사업보다는 상대적으로 복음전도에 더 비중을 두고 사역하였다(이만열, 2003: 129, 218). 남감리회는 황해도, 함경도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였고, 개성 남성병원, 원산 구세병원, 강원도 춘천병원을 설립하였다. 이 중 선교기지가 있었던 개성의 남성병원(아이비기념병원)은 간호사 양성학교를 운영하며 자국민 간호사를 양성하였고, 아편치유병원으로도 유명하였다(Stocks, 1947=장지철·김홍수 역, 2010: 202). 각 지역에서의 간호선교사역은 다음과 같다.

(1) 황해도 지역 사역

황해도지역의 간호선교사역은 개성 남성병원(아이비 기념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황해도 지역에서 사역한 간호선교사는 다음과 같다.

Gilberta Harris는 1910년 내한하여 남성병원에서 1915년까지 사역한 후 귀국하였다. 그녀는 남성병원에 간호사양성학교(Nurses's Training School)를 세우고 조선인 간호사를 양성하였다. 간호사 양성은 여러 간호선교사가 교체되면서도 계속 되었고 1920년까지 13명의 간호사를 배출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286; 옥성득, 2011: 615; 이만열, 2003: 442). Rosa May Lowder (나우도/羅佑道)는 Harris의 후임으로 1916년 내한하여 남성병원에서 병원사역과 간호사 양성사역을 하였고 1929년 귀국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350; 이만열, 2003: 442, 444). Carrie Turner는 1919년 내한하여 남성병원에서 병원사역을 하였으며 1924년 귀국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500; 이만열, 2003: 446). Alice Furry는 1921년 내한하여 남성병원에서 1년간 사역하였으며 이후 춘천으로 전임되어 춘천병원에서 근무하며 어린이 진료에 중점을 둔 순회진료를 실시하였고 1927년 귀국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259; 이만열, 2003: 442, 443, 448, 711, 712; 한국학연구소, 1981: 460). Mary Helen Rosser(나혜란/羅惠蘭)는 1924년 내한하여 개성 남성병원에서 근무하며 간호사들을 교육하였으며 해방 후 부산에서 공중위생사업을 수행하였고 1960년 귀국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447; 이만열, 2003: 707; 한국학연구소, 1981: 640).

(2) 함경도지역 사역

함경도 지역의 간호선교사역은 원산 구세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구세병원에서 사역한 간호선교사는 다음과 같다. Eleanor McCubbins은 1917년 내한하여 원산 구세병원에서 근무하였으며 1920년 이후 원산 여자관에서 여성계몽운동을 하였고 1929년 귀국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364). E. Blanche Hauser(후단/厚단)은 1923년 내한하여 원산 구세병원에서 근무하며 한국간호사들을 양성하였고, 1938년 세브란스병원으로 전임되었다(김승태·박혜진, 1994: 308; 이만열, 2003: 446, 710; 한국학연구소, 1981: 632, 743). Lynda Bray는 1923년 내한하여 원산 구세병원에서 1924년까지 근무 후 귀국하였다(이만열, 2003: 442, 710). Elston Rowland는 1931년 내한하여 원산 구세병원에서 병원사역을 하였으며 1940년 귀국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448; 한국학연구소, 1981: 809). Grace Elizabeth Alt(오을태/吳乙太)는 1937년 내한하여 원산 구세병원의 간호원장으로 근무했으며 1941년 귀국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138-139).

한편 Marbel Barbara Young은 캐나다장로회 소속으로 1919년 내한하여 원산 구세병원에서 사역하였으며 1922년 서울 세브란스병원으로 전임되었다(김승태·박혜진, 1994: 535; 신호철, 2004: 136; 한국학연구소, 1981: 270).

5. 캐나다 장로회를 기반으로 한 간호선교사와 사역

캐나다장로회는 함경도와 간도지역에서 사역하였는데, 함흥 제혜병원, 성진 제동병원, 간도지역의 용정 제창병원을 설립하였다. 캐나다장로회는 함흥 제혜병원에 간호학교를 설립하여 지방 간호사를 양성하였다. 제혜병원간호학교는 남자환자를 간호하기 위해 남자 간호사도 함께 양성하였으며, 1932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75명의 간호사를 배출하였다(Murray, 1975=김동열 역, 2009: 205). 각 지역에서의 간호선교사역은 다음과 같다.

(1) 함경도와 간도지역 사역

함경도지역의 간호선교사역은 함흥 제혜병원과 성진 제동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Visla E. Cardwell(비올라 카드웰)은 1925년 내한하여 함흥제혜병원에 근무하면서 여자 2명, 남자 3명으로 정규간호사 양성학교를 운영하였고 1927년 귀국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197; 이만열, 2003: 658, 717). Ada Sandell(산두일/山杜逸)은 1927년 내한하여 1928년 설립된 함흥 제혜병원 간호학교에서 간호사를 양성하였으며, 1941년 귀국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452; 이만열, 2003: 658, 717p; Murray, 1975=김

동열 역, 2009: 196-201).

Beulah V. Bourns (전은수/全銀水)는 1932년 내한하여 회령에서 공중보건사업을 수행하였고, 1939년 함흥제혜병원으로 전임되어 제혜병원간호사로 근무하였으며 1942년 귀국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175; 이만열, 2003: 658, 752).

Maud J. Mackinnon은 1916년 내한하여 성진 제동병원에서 근무했으며 1918년 간도의 용정 제창병원으로 전임되었다. 용정에서 3명의 간호학생을 교육했으며 건강악화로 1919년 7월 귀국하였다(이만열, 2003: 456).

간도지역의 사역은 용정 제창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Jessis D. Whitelaw는 1919년 내한하여 1920년 용정 제창병원에서 근무하여 간호사를 양성하였고, 1927년 회령으로 전임되었다. 회령에서 공중보건소를 개설하여 영아보건과 공중위생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33년 귀국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522; 이만열, 2003: 460).

6. 호주 장로회를 기반으로 한 간호선교사와 사역

호주장로회 간호선교사들은 진주 배둔 병원을 중심으로 사역하였다. 이들은 병원 사역 뿐만 아니라 병원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마산, 통영, 거창지역에 모성영유아 건강사업과 시역소 등을 운영하며 보건간호사업을 수행하였다(이상규, 1993). 또한 진주 배둔병원은 간호사양성에도 힘썼는데, 1930년대 이후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 자격을 갖춘 여성을 교육할 수 있었다(이상규, 2000: 223; 이만열, 2003: 714). 부산·경남지역에서의 간호선교사역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경남지역 사역

경남지역에서의 간호선교사역은 진주 배둔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Francis L. Clerke(가불란서/哥佛蘭西)는 1910년 진주지방 첫 간호선교사로 부임하여 1913년 완공된 배둔병원(Paton Memorial Hospital)의 설립을 도왔다. Clerke는 배둔병원에서 1920년까지 간호사로 근무하였고, 거창에 모자진료소를 개설하여 지방 순회전도사로 1920-1923년까지 사역하였다. 이후 1925년까지 배둔병원 간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진주 시원여학교 교장으로 1925-1936년까지 근무하였으며 1936년 질병으로 은퇴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209; 이만열, 2003: 713). Gertrude Napier(남성진)는 1912년 내한하여 마산에서 영유아보건사업을 위한 진료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1929-1936년까지 진주 배둔병원 간호부장으로 일하면서 병원에 영아부와 위생부, 병원부속보건회를 설치하여 보건간호사업을 시행하였다. 이후 1936년 동래여자 농업고등학교로 전임되어 근무하였으며, 1938년 사망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394; 이만열, 2003: 712, 738). M. Trudinger는 1922년 내한하여 마산에서 1925년까지 사역하였고, 1926-1928년까지 진주, 1928-1935년까지 통영에서 유아복지건강센터를

운영하며 진료 및 간호활동을 하였다. 이후 1935년 부산으로 전임되어 나환자 부모를 둔 미감염 자녀들 시설과 유아건강센터에서 사역하였으며 1941년 귀국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500; 이만열, 2003: 738; 이상규, 1993) Elsie T. Edgar(엠피에, 엠피아/葉德愛, 葉得兒)는 1931년 내한하여 경남통영에서 유아복지 건강센터를 운영하였으며 1933 진주 배돈병원으로 전임되어 간호부장으로 근무하며 간호사 양성에 힘썼고 1941년 귀국하였다(김승태·박혜진, 1994: 239; 이만열, 2003: 738, 739).

IV. 논의

본 연구에서 1892년부터 1940년까지 내한하여 조선에서 활동한 서양 간호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근대간호를 도입한 것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예수그리도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먼 타국인 조선에서 그들의 삶을 헌신한 사람들이었다(옥성득, 2011: 500; Ahn, 2009=김성웅 역, 2011: 69). 그들이 우리나라의 의료선교사역에 끼친 공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Crane, 1998=정병준, 2011: 41)

첫째, 구한말 내한한 서양 간호선교사들의 사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시기에 내한한 대다수의 간호선교사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이 속해 있는 선교회에서 설립된 병원을 중심으로 사역하였다. 즉, 내한한 간호선교사들이 처음에 시작한 사역은 병원에 근대식 간호를 도입하여 환자를 간호하는 것이었다. 이후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고, 또한 자국민인 조선인 간호사의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병원부속으로 간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간호교육을 하였다. 그리고 당시 열악한 보건환경으로 전염병 발생과 높은 영유아 사망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염병 예방과 모자보건 사업을 하였으며 이로써 지역사회간호로 그 사역의 영역을 확대시켜 나갔다. 병원이 흔하지 않았고, 전염성 질환과 여성과 영유아들의 건강이 주요 의료관심사였으며 여성이 남자의사에게 진료받기를 꺼려하는 당시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시기의 보건간호사업은 시기적절하고 영향력 있는 사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역은 한 명의 간호선교사가 두 세 가지의 역할들을 감당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즉, 그 때는 근대적 간호업무의 태동기로서 아직 간호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못하던 시기였으므로 병원에서의 환자간호와 병원부속 간호학교에서의 간호교육, 간호행정, 복음전도 등 상황의 요구에 따라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내한 간호선교사들이 한국간호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그들은 병원에서 환자간호의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선교사역 초기부터 시작되어 한말·일제강점기 동안 간호선교사역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 특

히, 초창기에 도착한 Jacobson(아각선/雅各善) 등의 간호선교사들은 헌신적으로 환자를 간호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일반인의 신뢰를 얻어냈으며 병원에 소독법과 체계적 간호행정 등을 도입하여 조선의 간호가 현대간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였다(옥성득, 2011: 489).

내한한 간호선교사들은 병원부속으로 설립된 간호학교에서 조선인 간호사를 양성하였다. 당시는 조선에 근대적 개념의 간호가 자리 잡기 전이었으므로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캐나다 등지에서 정규 간호대학의 교육과정을 마친 서양간호선교사들이 조선인 간호사를 교육하여 간호교육의 기틀을 형성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옥성득, 2011: 521). 당시 간호선교사들은 간호학교의 입학자격을 제한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간호학교에 입학하도록 했다. 또한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의 질 향상과 간호직에 대한 일반백성의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Murray, 1975=김동열 역, 2009: 205). 특히 여성의 교육기회가 제한된 당시에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셋째, 내한 간호선교사들은 간호사로 일하는 동시에 복음전도자로서 일하기도 하여, 그들이 조선말 이 땅의 복음전도에 미친 영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구한말 조선에 온 여성선교사들은 복음과 의료혜택을 이방의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전해야겠다는 사명을 품은 사람들이었으므로(Ahn, 2009=김성웅 역, 2011: 51), 이 시기에 사역한 간호선교사들도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복음전도는 내한간호선교사들의 사역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간호업무를 하는 도중 상황이 허락되면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또한 북장로회의 Shields(서서평/徐舒平), Brown, Helstrom(허희다/許喜多), Forsyth, Ingerson(인거선/印居善), 북감리회의 Lewis(유의선/劉義善), Anderson(안도선2/安道善2), 남장로회의 Shepping(서서평/徐舒平), Thumm(원마태), 호주장로회의 Clerke(가불난서/哥佛蘭西) 등은 소속된 선교회의 결정에 따라 순회전도 사역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서양간호선교사들의 복음전과 사역은 돌봄 대상자들의 신체, 정서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까지도 함께 돌보는 전인간호 수행의 원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구한말·일제강점기 동안에 내한한 서양 간호선교사들은 전문인으로서 복음전파의 열정을 가지고 조선에 입국하였으나, 정치적, 물리적 환경들이 매우 위험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사역했으므로 많은 고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간호사역을 펼칠 수 있는 제반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운영비용, 장비, 인력이 부족한 의료 상황에서 활동했으며(Stocks, 1947=장지철·김홍수, 2010: 2511), 그 결과 많은 간호선교사들이 과로와 질병에 시달리다 사직하거나 사망하였다.

북장로회의 Jacobson(아각선/雅各善), Brown, Cameron, Helstrom(허희다/許喜多), Ludlow, 남장로회의 McCallie, Pitts, Rathrop(라두리/라두릅), Shepping(서서평/徐舒

平), Thumm(원마태), 캐나다장로회의 Young, 호주장로회의 Clerke(가불란서/哥佛蘭西), Napier(남성진/南性眞)등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내한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고향과는 모든 것이 다른 조선에 왔을 때 엄청난 문화충격을 경험했을 것이다. 특히 구한말 초기에 내한한 선교사들은 조선의 쇄국정책 탓에 조선에 대해 매우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므로(Ahn, 2009=김성웅역, 2011: 96) 더욱 심한 문화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섯째, 구한말에 내한한 서양간호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100여 년 전이 땅에 그들을 통하여 복음과 근대간호가 전파되었고, 그 결과 놀라운 발전과 변화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의미있는 사역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들의 사역을 돌이켜 보면서 오늘날 한국 간호의 방향, 특히 한국기독교간호사의 사명과 사역방향을 살펴보는 것이 의의가 있을 것이다.

100년 전에 서양선교사들의 섬김을 받았던 이 나라는 받는 나라에서 주는 국가가 되었다. 즉, 한국은 세계 제 2위의 선교대국으로 2012년 12월 말 441명의 의료선교사들이 48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한국세계선교협의회, 2013). 지금도 한국 간호선교사들이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 그리고 환경이 열악한 제 3세계에서 복음전도와 함께 그곳의 건강 상황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선말에 이 나라의 근대간호의 태동시기에 활동한 서양의 간호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날 한국 간호선교사들도 병원중심 환자간호, 지역사회간호, 학교교육을 하면서 복음전도와 질병의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양용숙, 2009).

그러나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간호선교 사역을 펼치기 위하여는 체계적인 간호선교사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역한 간호선교사들의 사료를 통하여 그들의 사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통하여 미래 간호선교 사역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타문화권에서 사역하는 간호선교사들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과 훈련 프로그램도 준비되어야 하고, 그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도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국 간호학계는 전문적인 역사학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옥성득, 2012), 최근 대한 간호협회가 주최가 되어 역사뿌리 찾기 운동 등을 수행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간호역사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과 아울러 미시적인 관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간호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의미있는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한 역사연구의 자료수집과 해석도 앞으로 지속되어야 할 연구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북감리회 첫 간호선교사인 Ella A. Lewis가 내한 한 1892년부터 1940년까지 내한 한 간호선교사들의 주 사역지와 활동기간 및 주요 업적을 기술한 연구이다.

이 시기에 사역한 간호선교사의 수는 72명이며 구체적으로 미 북장로회 25명, 미 북감리회 13명, 미 남장로회 15명, 미 남감리회 11명, 캐나다 장로회 6명, 호주 장로회 4명으로 총 74명 이었다.

내한 한 간호선교사들의 활동은 소속교단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중심으로 사역하였다. 주로 병원을 거점으로 환자간호와 간호교육을 수행 하였고, 지역사회로 그 활동범위를 확대해나갔다. 간호사로서 전문 사역인 보건교육, 질병예방 등의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하면서 또한 열악한 여성의 인권에 대한 계몽운동으로 여성교육 등을 행하면서 사회참여활동도 수행하였다. 그리고 여건이 되는 한 늘 영혼구원을 위한 전도사역을 병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병원행정자로서 우리나라에 근대 간호의 도입에 많은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리고 특징적인 점은 결혼과 동시에 활동의 많은 부분이 감소하였던 것은 시대적인 상황과 타국에서 출산과 양육의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었으며, 많은 간호사들이 타국에서 적응문제와 과로로 인하여 건강문제가 악화되어 사역을 쉬게 되거나 멈추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었다.

간호선교사들의 주 사역지로 미 북장로회는 서울·경기, 대구·경북, 평안도에서, 미 북감리회는 서울·경기, 평안도, 황해도, 충청도에서, 미 남장로회는 전라도, 미 남감리회는 황해도, 함경도에서, 캐나다장로회는 함경도와 간도, 호주장로회는 경상도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였다.

이상과 같은 간호선교사들의 사역에 대한 정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개별 간호선교사의 인물과 사역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2. 특정 지역의 간호사역과 그 시대와 간호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한국간호선교사들의 타문화권 간호사역의 개발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남선 (1997). “포스트구조주의적 분석을 이용한 간호와 보건의료의 역사에 대한 재해석의 한 시도.” 『대한간호학회지』. 27(3). 531-540.
- 김수진 (1992). 『호남선교 100년과 그 사역자들』. 서울: 고려글방.
- 김승태·박혜진 (1994). 『내한 선교사 총람 1884-1984』.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류대영 (2001). 『초기 미국선교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박보경 (2007). “한국 초기 여성 선교사의 사역과 선교학적 의의(1908-1942).” 『선교와 신학』. 19. 149- 183.
- 서정민 (2003). 『제중원과 초기 한국기독교』.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송현강 (2011). “미국 남장로교 전북지역 의료선교(1896-1940).” 『한국기독교와 역사』. 35. 47-77.
- 신호철 (2004). 『양화진선교사』. 서울: 양화진선교회.
- 양용숙 (2009). “한국기독교간호사 선교사의 직무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오가실·김정현·이영자 (2000). “간호 역사 관련 문헌에 관한 일 연구.” 『간호학탐구』. 9(2). 56-75.
- 육성득 (2011). 『한국간호역사자료집 I』. 서울: 대한간호협회.
- _____ (2012). “초기 개신교 간호와 간호교육의 정체성.” 『한국기독교와 역사』. 36. 185-230.
- 이만열 (2003). 『한국기독교의료사』. 서울: 아카넷.
- 이방원 (2011). “보구여관 간호원 양성소(1903-1933)의 설립과 운영.” 『대한의사학회』. 20(2). 355-394.
- 이상규 (1993). “한국에서의 의료선교사역에 관한 고찰(1880-1945).” 『고신대학교논문집』. 20. 327-345.
- _____ (2000). 『의료선교의 역사』. 서울: 한국누가회.
- _____ (2009). “한국간호선교의 역사와 전망.” 『고신선교』. 5 229-251.
- 이정열·조윤희·고지숙·김정애 (2011). “연세간호를 태동 시킨 외국 선교사들.”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7(1). 44-51.
- 이꽃메·김화중 (1999). “일제시대 선교회의 보건간호사업에 대한 역사적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0(2). 455-466.
- 조동걸·한영구·박찬승 (1994).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하)』. 서울: 창작과 비평사.
- 『조선 재류 구미인 조사록 1907-1942』 (1981). 서울: 영신아카데미 한국학연구소.
- 최영근 (2012). “미국 남장로교 여선교사 엘리자베스 웨핑의 통전적 선교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2. 231-261.
- 황미숙 (2011). “선교사 마렌 보딩의 공주·대전 지역 유아 복지와 우유급식소 사업.” 『한국기독교와 역사』. 34 165-190.
- 황상익·기창덕 (1994). “조선말과 일제 강점기 동안 내한한 서양 선교의료인의 활동 분석.” 『의사학』. 3(1). 56-72.
- Ahn, K. H. L. (2009). *Awakening the hermit kingdom: pioneer American women missionaries in Korea*. CA: William carey library; 김성웅 역(2011).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 은자의 날에 처음 파송된 선교사 이야기』. 서울: 포이에마.
- Bording, M. P. (1928). “Infant Welfare and Public Health Work in Konju.” 『Korean Mission Field』. 26(3). 52.
- Crane, S. M. (1998). *A legacy remembered: A Century of Medical Missions*.

- Mountain: Providence house; 정병준 역(2011). 『기억해야 할 유산: 미국 남장로회 한국 의료선교 역사』. 서울: CTS.
- Esteb. K. M. (1927). Market-place Dispensary Work. *Korean Mission Field*, 23(1), 16.
- Hrelstrom, H. L. (1911). “Down the Yalu.” 『*Korean Mission Field*』. 7(9). 244-245.
- Kostrup, B. A. (1934). “Christmas at the Chemulpo Dispensary.” 『*Korean Mission Field*』. 30(11). 240.
- Knox, M. B. & Talmage, E. E.(1934). “Miss E. J. Shepping- An Appreciation.” 『*Korean Mission Field*』. 30(10). 218-219.
- Murray, F. J. (1975). *AT THE FOOT OF DRAGON HILL*. NY: Dutton, a member of Penguin Group USA.; 김동열 역(2009). 『내가 사랑한 조선』. 서울: 두란노.
- Napier, G. (1921). “At Grips with Cholera.” 『*Korean Mission Field*』. 17(3). 63-62.
- Nelson, M. V. (1935). “Christmas in Severance Hospital-1934.” 『*Korean Mission Field*』. 31(12). 249.
- Nisbet, J. S. (1931). “Mrs. Emily Cordell McCallie.” 『*Korean Mission Field*』. 27(9). 191.
- Rhodes, H. A. (1929).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최재건 역(2010).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 회사 VOLUME I (1884-1934)(2nd ed)』.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Roberts, E. S. (1920). “District Nursing I.” 『*Korean Mission Field*』. 16(10). 204-205.
- Rosenberger, E. T. (1930). “The New Seoul Child- Welfare Union”. 『*Korean Mission Field*』. 26(5). 109-110.
- Rosenberger, E. T. (1931). “Soy Bean Milk and Feeding Procedure.” 『*Korean Mission Field*』. 27(6). 133-134.
- Shields, E. L. (1907). “Co-operation In Training Nurses.” 『*Korean Mission Field*』. 3(1). 10-11.
- Stocks, C. D. (1947). *History of Methodist in Korea, 1885-1930*.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Yale, Boston; 장지철·김홍수 역(2010) 『미국감리교회의 한국선교 역사 1885-1930』.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